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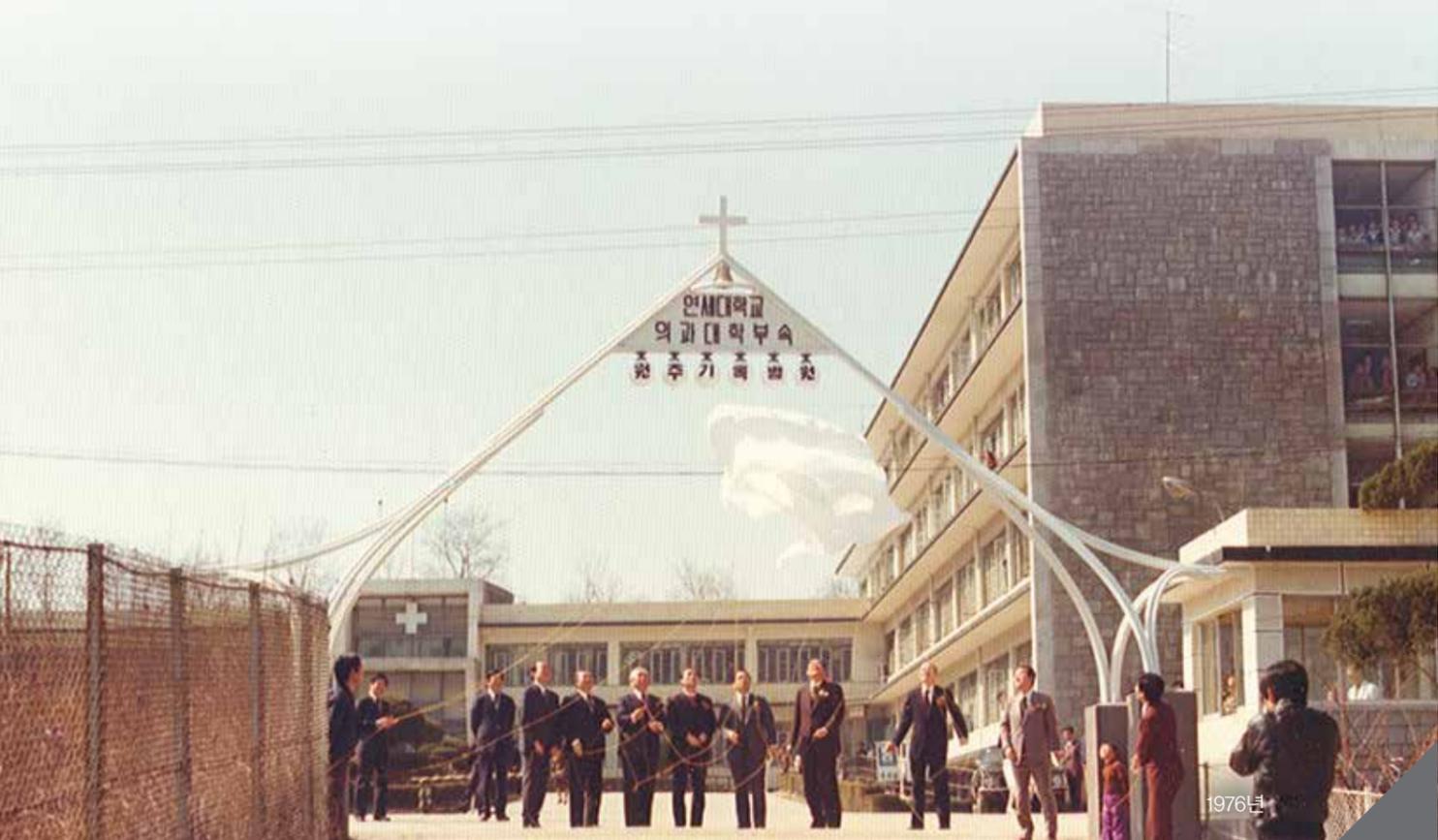
# COS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의학과 소식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역량있고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의사 양성



## 연세원주의대 연혁

1977.1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원주분교 설립인가	2003.01 진리관 봉헌식(강의동 및 의학도서관)
1978.03 원주분교 개강식 및 교사 기공식	2004.02 의학교육실 개소
1981.01 원주대학으로 승격	2004.11 임상시험수기센터 개소
1982.10 원주의과대학으로 승격	2006.01 의사국가시험 전국 수석 배출
1984.02 의학과 1회 졸업생 배출	2008.05 상담 코칭센터 개소
1988.03 원주의과대학 개교 10주년 기념행사	2009.05 1회 졸업생 졸업 25주년 재상봉 행사
1989.08 제1원의학사(학생기숙사) 봉헌식	2009.11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개원 50주년 기념식
1993.05 종합관 봉헌식	2010.12 의과대학 인증평가 최고등급 인증
1997.10 제2원의학사(학생기숙사) 봉헌식	2013.10 의학교육학과, 진료역량개발센터 개설
1998.09 원주의과대학 20년사 편찬	2014.02 COS 창간



1976년

**COS**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소식지  
2015 가을호  
발행인 홍인수  
편집인 공인덕 김영아 남동현  
박종택 박주혜 송봉환 예병일  
발행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주소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전화 033)741-0212

▶ 표지 사진 /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초창기 재학생들에게 도깨비 집(Ghost House)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 건물은 매스 하우스로 후에 Guest House로 이용되었다. 초기에는 그룹 공부방으로 사용되었으나 후에 건물이 철거된 후 현재는 강의실, 도서관, PBL실, 시뮬레이션 센터 등이 위치한 진리관으로 이용중이다.

▶ 소식지 이름 / COS는 터키 남서부 해안 부근에 있는 그리스령 섬으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출생지이다. 고대 그리스시대에 문예활동의 중심지였으며,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우스의 신전이 지어지기도 했다. 이 섬에서 탄생한 의학은 의학교육의 불모지인 강원도 원주에서 1978년에 다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이 미래 의학의 중심지가 되기를 기대한다.



## 아들의 학창시절을 회상하며



아들 김정근이 의사가 되는 길은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보람이 큰 과정이었지요.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여유를 찾기 시작했으며, 나름대로 명의를 꿈꾸는 듯하여 가족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재학중인 아들이 학습으로 인해 바쁜 일상을 보낼 때, 의대생 자녀를 위한 부모로서 어떤 자세가 필요했는지를 되돌아 봅니다.

첫째, "용기"를 더 북돋아 주어야 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공부 부담에 의해 끊임없는 자기 극복이 필요한 자녀에게 "넌 할 수 있어~. 그 과목을 잘 할 수 있을 거야~"라는 격려의 말이 더 필요했었습니다.

둘째, "친교"입니다. 함께 놀고,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간의 우정은 의대 생활의 성패를 좌우한다 생각합니다. 관계를 처음 형성하는 1학년 때가 가장 중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 "만남"입니다. 예비 의사로서, 의료직종 선배들과 끊임없이 만나고, 소통을 한다면 스스로 학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그동안 많은 교수님들께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어느 한 가지 말씀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또 학부 모님들과의 교류도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본과 4학년 시절, 진로코칭센터를 통한 과정은 깊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몇 가지를 대학에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성교육"입니다. 가능하다면 예과는 물론 본과에서도 지속적 인성개발 시도가 있으면 합니다. 의술의 기반은 바로 의료인의 인성을 양성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진로교육"입니다. 임상 의사의 길 이외에도 다양한 진로가 펼쳐질 수 있는 바 진로를 향한 폭넓은 안내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셋째, "소통교육"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힘을 만들어 내는 융합의 시대에 소통능력은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특히 환자와의 소통이 대면소통을 넘어 원격의료의 화상소통으로 확대될 의료환경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소통능력을 재학시부터 강조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학교와의 인연을 맺은 후 남은 것은 바로 "감사함"이었습니다. 가르침과 배움의 여정에서 교수님들에 대한 감사함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세브란스"라는 브랜드를 꽃피우는 자랑스런 전통이 찬란히 이어가길 바랍니다. 2016년 의사고시에서도 멋진 성과가 이어지길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전 학부모협의회장 김 내 동



01 의학과 7회 25주년 재상봉

▶ 1억 5천 5백만원 기금 전달

03 제20차 해외의료 선교 파송

▶ 방글라데시, 의료진 18명, 448명 진료

05 교수세미나 개최

▶ 교수개발, 하이원리조트

07 대학 직원 직무아카데미

▶ 대학 현황 및 2015 중점사업 안내  
▶ 특강: 김관식 목사

09 평창동계올림픽 핵심역할 수행

▶ 동계올림픽 의무지원 연수회  
▶ 강원권 레저 스포츠 경쟁력 강화 세미나

02 의학과 평가인증 자체평가 연구보고서 발간

▶ 의과대학 평가(10/26-30, 예정)

04 기관 환경개선 작업

▶ 정문, 동아리방, 의학관 로비

06 환경보건기술개발 사업 선정

▶ 정순희 교수(병리학), 고상백 교수(예방의학)

08 네팔 대지진 긴급 구호 의료진 파견

▶ 네팔 고르카 지역 (굿네이버스와 공동 활동)  
▶ 의료진 : 3명 / 진료 : 830여명

10 홈페이지 개편

▶ mobile 환경(스마트폰 등)과 personal computer 환경에서 동시 접속과 전환 가능

제중원 탄생 130주년, 한국의학의 산실 세브란스, 그 속에서 원주의대를 되짚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초대 동창회장을 역임했던 1회 졸업생 이종혁입니다. 어느덧 치약산도 단풍으로 물드는 가을이 오고 원주의대 의학과 소식지 COS도 이제 4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의과대학 의학과 동창들의 소식을 담은 소식지에 제가 인사말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원주의과대학이 1978년에 개교한 후 어느덧 3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른 의과대학과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원주의과대학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새 단장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중원 탄생 1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의학의 시초로 여겨지는 제중원은 세브란스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세브란스가 한국의학의 산실인 것입니다. 우리 원주의대는 이런 세브란스

와 뿌리를 같이 두고 37년의 오랜 기간 동안 동반하여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의학의 산실 세브란스 동문이자 한국 지성의 요람 연세대학교의 동문으로써 원주의대 동문들은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그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의과대학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없었다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라는 이름은 2% 부족한 상태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분교가 아닌 하나의 단과대학으로 우리 원주의과대학은 원주를 비롯한 강원, 중부권을 책임지는 훌륭한 의료진을 배출했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그 기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동문회가 아닌 원주의대인만을 위한 동창회를 처음 구성할 때 저를 비롯한 초대 동문회원들은 우리의 "Role"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동문으로써 모교를 사랑하고,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며 우리를 키워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의료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브란스의 정신을 지닌 동문으로 한국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적 리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외래센터가 완공되는 원년입니다. 새 외래센터와 더불어 원주의과대학은 한 단계 도약을 해야 합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을 비롯하여 한국사회에 기여해야 할 일은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원주의과대학이라는 훌륭한 학교의 동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한국, 나아가 세계 속의 원주의대인으로 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글을 마칩니다.

초대 동창회장 이종혁 (1984년 졸업)



## 이제 이 기관을 떠나려 합니다. Au revoir!

강성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외과학교실)



후배들이 준비해 준, 저의 퇴임행사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40년간 근무한 기관을 떠나는 저에게 보내 주신 따뜻함에 대한 감사와 흥분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게 되지만 다시 한 번 한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퇴임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의료원장, 학장, 원도회 부회장, 동기대표, 담임반 학생, 그리고 내 인생의 동반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눈물이 몇 방울 흘렸습니다. 눈물은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데 선물을 받고 떠나게 되어 또 감사합니다.

퇴임사를 준비하려다 보니 내 인생은 감사한 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일찍이 홀로 되셨지만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대학에서 정년퇴임을 맞이할 때까지 키워주신 어머니, 이렇게 인생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우리나라에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에 감사합니다. 저를 의사로 만들어 주시고, 지난 40년간 내 가족을 만나게 해주시고 성실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75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원주에 인턴을 하러 올 때는 곧 미국으로 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25전쟁 당시 육군대위였던 부친이 전사하신 후, 부선망독자였던 저는 군복무를

면제받은 상태였는데 수원에서 원주로 주민등록을 옮겼더니 강원도 원주에서는 군에 복무할 자원이 적다는 이유로 두 달 만에 영장이 나왔습니다. 밤에는 비행장에서 보초를 서고, 낮에는 병원에서 가발을 쓴 채 일을 하는 비정상적인 전공의 생활은 점점 익숙해져 갔으며 선배, 스승님들의 "잘 한다. 똑똑하다. 부지런하다. 손재주 있다"고 하신 칭찬이 정말인줄로 착각하고 이곳 원주에 정착하게 된 것이 지금의 외과교수의 계기가 되었는데 돌이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1977년 봄, 의과대학 여동창이 외과의사가 되겠다고 원주에 나타났는데 바쁘고 외로운 전공의 생활 중 우리는 정이 들었고 결국은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 순서에 앞서서 한 말씀을 한 유수영 원장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하려면 얼마든지 길게 할 수 있지만 이 자리는 좋은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 빨리 끝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끝날 때까지 좋은 말은 딱 한마디밖에 하지 않았습다. "제가 퇴임하던 날 학장으로써 한 마디 한다는 것이 "동료로는 100점짜리, 아내로는 빵점짜리"라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간 날을 되돌아보니 제가 실수해도 잘 봐 주고, 가정에 덜 충실해도 잘 해 줬고, 외과의사로 잘 대해 주었습니다. 의사로는 내 수술을 맡기고 싶은 사람입니다."

갑상선을 연구하는 학자들, 동료들에게 감사합니다. 스승님인 시카고대학의 카플란 교수를 비롯하여 선배, 동료, 후배들이 함께 해 주었기에 갑상선을 전문으로 다루는 의사로서 즐거운 인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외과의사로 살아오던 중에 교무부학장을 맡게 되었고, 이어서 학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소중한 분들의 도움으로 정신없이 임기를 마쳤는데 벌써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일부에서는 제가 드림팀을 이끌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도와주신 박중구, 홍인수, 박주영 부학장님들이 모두 학장을 역임했거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잠을 설쳐 가며 학교일에 매진해 준 부학장님들과 교직원 모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퇴임식을 마련해 준 후배교수들은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임상의로 살아온 나보다 수술은 물론 연구에도 훌륭한 성과가 있으며, 어려운 환자를 밤새 지켜서 살려내는 배금석 교수의 성실함과 노력에는 존경심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더욱더 노력하여 존경받는 교수가 되고, 우리 사회와 기관에 버팀목이 되는 재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복회, 금슬회, 알중모 모임에서 만난 친구와 선후배 교수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제 인생을 즐겁고 아름답게 꾸며 주신 분들이며 생활의 활력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수술 받은 10,000여명의 갑상선 환자들에게 감사합니다. 많은 합병증, 부작용이 있었지만 오로지 저를 믿고 따라 주신 진정한 저의 스승님인 환자분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 발생이 1% 미만이라고 학회에서 자랑하고 다녔지만 합병증이 병발된 환자는 100%자신의 문제입니다. 그 아픔이 저의 가슴에 항상 응어리져 있습니다. 다만 환자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정도 없이 환자대표 박진옥님께서 마이크를 잡고, "그냥 있으려 했는데 환자들에게 감사하다고 하셨으니 저도 한 마디 해야겠습니다."라며 덕담을 해 주시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작년 10월에 마지막 강의를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학생 때 세계최고, 한국최고의 강의를 들은 걸 감사하게 생각해 왔고, 교수가 되어서는 내가 세계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그 학생들이 그 자부심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첫 강의를 할 때는 미리 녹음을 해 가며 준비했고, 다시 들어가며 또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가 소홀해지고, 모든 걸 다 아는 척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 창피하고 죄송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내 수업을 들어 준 학생과 전공의들에게 감사하며, 후배 교수들은 모두에게 인정받는 교수, 적어도 의학계에서 그가 무엇을 연구하는지 모두가 인정할 정도가 아니면 교수직을 그만두라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하고 싶습니다.

"정년퇴직(retire)은 타이어를 다시 끼우는 것이니 내일부터 인생의 2장을 맞이하여 타이어 두 짝을 갈아 끼우시고 고속 질주하십시오"라는 원도회 허 현 부회장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친구 김성진 교수의 섹스폰 연주, 류훈 교수의 아내 이은지님의 "You raise me up", 친구 서석환 원장의 "Let it be me", 외상센터 후배의사들의 연주를 듣다 보니 내가 살아온 인생, 앞으로의 미래가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이 장면처럼 앞으로의 시간에서도 저를 지켜보시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멋지게 장식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제 밤이 깊어 갑니다. 비록 여러분들과 한 기관에서 일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인연을 인생에서 누린 소중한 기쁨으로 간직하며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그 전날보다 더 즐겁고 보람된 날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할 것이며 여러분은 저의 자랑입니다. Au revoir!"





■ 7억원 이상

이름을 밝히지 않으신 분

■ 6억원 이상

광혜장학금

■ 5억원 이상

대학교회

■ 3억원 이상

학부모협의회

■ 2억원 이상

Dr. Donald S. Mattson, 건양의료재단, 신한은행, 청파장학회, 태백중앙병원

■ 1억 5천만원 이상

강성준/유수영

■ 1억원 이상

권장연, 김남권, 김종욱, 김현수, 듀캠바이오(주), 메디웰아주내과, 원주의대동창회, 의학과2회졸업동문, 의학과3회졸업동문, 의학과4회졸업동문, 의학과5회졸업동문, 의학과6회졸업동문, 의학과7회 졸업동문, 이한규

▼ 참고

▼ 2015. 8. 31 현재

▼ 기부금 종류

장학금, 교육환경개선기금, 교실발전기금, 의학연구기금, 건립기금, 재창조사업기금, 의료선교기금, 사회사업기금

■ 5천만원 이상

88동문장학금, YBM 시사영어사, 강원도지사, 개원동창장학금, 김남동, 김명철, 김태영외, 노병선, 민성호, 민미심/염동호, 박종구, 박주영, 사노피아벤티스, 송복은장학재단, 신정호, 앙코르서울, 연세치과위생사, 용석중/정순희, 원주의과대학생, 윤창한, 의학과1회졸업동문, 의학과23회졸업생, 이광훈, 이애실외, 이중우, 정장균/조미연, 채종성, 치위생학과동문회, 한민희, 한재희, 황금/박진숙, 황성오

■ 3천만원 이상

FMC코리아(주), 김대현, 김수철, 김영진, 김정식, 메가스터디(주), 박기창, 박스터(주), 박창호, 범성기, 송광선, 신명국/조동희, 엄대자담임반, 예병일, 유병일, 유한재단, 윤정한, 이범교, 이성우, 이영희, 이원수, 정춘희, 진성기업, 차봉석, 한병근, 허혜경, 현대케미칼(주), 홍민, 홍인수

■ 2천만원 이상

87동문장학금, 89동문장학금, 90동문장학금, 강봉구, 강호석, 공인덕, 권상욱, 길승배, 김기연, 김성진, 김수희, 김승률, 김용란, 김인규, 김진수, 김철한, 김현주, 남정직, 동창회후원금, 등영건, 롯데주류, 리원연, 박경화, 박동준, 박미나, 박정은, 박호남, 보아스팜, 본술장학재단, 성우장학회, 송재만, 신계철, 안양희, 양정학, 어홍선, 엄원석, 연세의대82졸업생, 오픈북, 유재하, 이규남, 이남석, 이대운, 이명섭, 이세희, 이승환, 이창근, 이형준, 임현교, 장경훈, 정갑영, 정병찬, 조승래, 지광원, 지희철, 최승욱, 최영식, 최종환, 한국쉐링(주), 한병근, 한용표, 한재범, 황상민



여러분들이 전해주시는 기부금이 다양한 학교 개선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2014~현재)

1. 학생 동아리방 전면 리모델링
2. 대학내 전구역 WIFI 구축 및 디지털랩 가상화 PC 구축
3. 대학 정문 및 본관 주 출입구 개선공사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금이 학교의 미래를 발전시키는 사업에 잘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엄대자 교수 (마취통증의학교실) 박세준(의학4), 김기남(의학2), 정형준(의학1)



우리 담임반은 졸업생들과도 주기적인 모임을 가진다. 저녁식사를 하며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학업성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졸업생 선배님으로부터 많은 위로와 충고를 받을 수 있어서 한없이 위축되어 있던 자신감을 되살려 다시 공부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교수님과 졸업생 선배님들은 매년 장학금을 모아 학교에 기부를 하고 있다. 재학생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나누어주는 것이며, 바람직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하여 한창 들떠 있던 차에 담임반이라는 다소 생소한 제도를 접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의 담임반 제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엄대자 교수님 담임반에 배정을 받았을 때 내가 마주친 담임반은 예상과 많이 다른 것이었다. 대학교과 할 때 흔히 상상되던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친밀하고 돈독한 가족같은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외국에 계셔서 한국에 혼자 외롭게 남아 있던 나에게 우리 담임반은 진정으로 가족과 같았다. 잘못된 것에 대해 때로는 꾸짖으면서 바로잡아 주셨는데,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담임반은 나의 마음에 비어 있는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다. 엄대자 교수님께서서는 가능하면 자주 시간을 내셔서 우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하신다. 학교는 잘 다니고 있는지,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았는지를 물어보시고, 또 잘 들어주셨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모임을 가질 때마다 식사를 하고,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곤 한다. 담임반 선배들도 후배들에게 간식도 사 주시고, 고민 상담도 해 주신다. 외국에서는 보기 힘든 선후배 관계가 놀랍기도 하고, 담임반 제도가 있는 학교에 들어온 것이 행운이라 생각되기도 한다. 교수님 덕분에 한국생활에 적응하기가 훨씬 편했다.



엄대자 교수님 담임반의 일원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큰 축복이라 생각되어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담임반을 통해 타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조화롭고 어진 의사로서의 기초적 소양을 배울 수 있었다. 나는 선후배들과 교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원주의과대학 교육목표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역량 있고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의료인"이 될 수 있다고 굳건히 믿는다.

정형준 (의학과 1학년)



### 정순희 교수 (병리학교실) 육화정(의학2), 나세환(의학1), 고가현(의학1), 김주인(의예2)



우리 담임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의 담임반"이다. 정순희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어머니가 되어 주시고, 학생들도 딱딱한 선후배 관계가 아니라 형제자매와 같이 돈독한 우애가 있다. 우리 담임반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현재 대학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회에서도 운영위원, 성가대, 주일학교, 찬양팀 등 각자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아름다운 헌신을 하고 있다.

우리 담임반은 용석중 교수님, 김상하 교수님 담임반과 함께 모임을 가지곤 한다. 세 반이 함께 하니 모두 모이면 꽤 큰 규모가 된다. 1년에 한 차례씩 다함께 에버랜드에서 모임을 가지곤 하는데 하루를 열심히 즐긴 후 이어지는 애프터모임에서도 가족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유지되고, 세 담임반이 한 담임반처럼 화합을 도모한다. 자유롭게 편안하게 각자 마시고 싶은 만큼 적당히 음주를 하며,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면서 사귄 기회를 가진다.

졸업을 하신 OB 선생님들께서도 종종 애정을 가지고 담임반 모임에 출석하시곤 하며, 실제로 현재 인턴이신 선생님들의 오프 일정을 맞춰가며 담임반 일정을 잡고 있다. OB 선생님들 중에서도 특별히 염동호/민미심 원장님께서서는 담임반을 위해 매년 소정의 장학금을 학교를 통해 기부하실 정도로 아낌없는 후원을 해 주시고 계신다. 작년에는 담임반 재학생들끼리 MT를 가서 밤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꽃을 피우며 울고 웃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고, 올해도 계획 중에 있다.

이렇게 좋은 담임반에 속하게 된 것은 인생에 있어서 큰 축복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담임반 교수님과 선후배님들께 잘 배우고 성장하여 우리 학교의 교육목표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역량 있고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의료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길 소망한다. 또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기관인 우리 학교와 병원이 담임반 제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의료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나세환 (의학과 1학년)

### 고 김세환 전 학장님 영전에

지난 봄 김세환 전 학장님의 부음소식을 듣고, "아직 하나님 품에 안기실 때가 아녜데 왜 이렇게 주님께서 일찍 부르셨을까?" 생각하며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교수님께서 원주기독병원의 성장과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의 시작이 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원주분교의 설립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애쓰셨음을, 후에 이 기관에 근무하면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원주의과대학의 역사를 듣고 배우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주의과대학 회로 입학하여 교수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모든 교육과정과 학생활동의 지도를 받았던 우리들에게 교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따뜻한 사랑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학 건물이 없이 입학한 우리들은 병원 뒤쪽 예배실로 사용하던 작은 콘서트홀에서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늑하였지만 여름이 가까이 오면서 태양열로 달아오르는 실내는 참을 수 없이 더웠고, 기말고사를 치르기 위하여 앉아있던 우리들의 얼굴과 팔뚝으로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보신 교수님께서 즉시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해주셔서 시원하게 시험을 볼 수 있었던 일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첫 수업시간에 우리 학생들에게 하셨던 "'G.O.K.'가 무엇인지 아는가?" 라는 질문은 제가 지금도 창조과학수업의 첫 마디로 학생들과 나누는 질문입니다. G.O.K "God Only Knows" ~ 의학을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의과학적 지식의 한계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믿고 깨닫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치료하게 될 의사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또한 채플 시간에 들려주셨던 고린도 전서 3장의 말씀 또한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룁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어렵고 고된 일정으로 힘이 들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나 자신이 심고 물주는 일을 잘하고 있는지 또는 하나님께서 하실 자라나게 할 결과를 미리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면서 교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제자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셨던 뜻을 헤아려 봅니다.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서 서울음대 기악과에 입학시험을 치른 후 불합격의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진 저에게 첫 피아노 지도 선생님이시면서 사모님이셨던 이화재 장로님을 통하여 원주의과대학 입학시험을 보라고 권유하시면서 의학의 길을 걷게 해 주셨으니 고 김세환 전 학장님과 이화재 장로님

모두 제게는 너무나 귀하신 은인이십니다. 은혜에 보답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이렇게 이별을 고향에 되니 너무나 송구스럽고 아쉽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언젠가 다시 만나 뵈을 날이 있음을 믿고, 스승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사랑과 진리의 가치를 가슴 속에 새기고 실천하면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제자 정순희 올림 (1984년 졸업)



### 모교 강의를 다녀와서



모교에서 후배들을 위한 수업을 맡은지 6년째가 되었습니다. 5년 전 수업을 한 의예과 신입생들이 본과 4학년이 되었고, 2015년 1학기에 의예과 1학년 수업을 하는 날은 마침 졸업 사진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서 밝게 웃으며 자신감 넘치는 얼굴들을 발견하니 즐거웠습니다.

매년 강의 요청을 받을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모교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선생님이라면 화려한 연구 업적을 발표하거나 의과대학과 병원을 위한 기부금, 장학금을 위해서 오시겠지만, 위 내용 모두 해당사항 없는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모교를 찾곤 합니다. 올 때마다 25년 전 의예과 1학년이던 저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2지망으로 입학한 학과여서 흥미도 없었고, 적성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집을 떠나 지방에서의 대학생활이 막막하게 느껴졌고, 6년 이상 원주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우울해졌습니다.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아보고, 재미있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영화사 근무, 의학 만화 기획, 의학회 총

무로서 의학과 밤에 야외 번사극 기획, 학생 휴게실에 신촌과 대학로의 공연 포스터 전시 등이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졸업 후 가정의학과 전공의를 마치고 세상을 둘러보니 다양하게 인생을 즐기는 선배 의사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들에게서 영향 받은 저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의학 만화라는 분야를 후배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의학 만화에 있어서 원주의과대학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에 관해서입니다.

예능프로 삼시세끼를 보면 척박해 보이는 환경에서 새롭게 요리, 농사, 건축, 낚시 등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시청자들은 그것에 재미를 느낍니다.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강원도 원주라는 지역, 의과대학의 딱딱하고 건조한 분위기는 주위에 관심을 끌고 공부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공부만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임상 의사는 이제 너무 흔한 직업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관한 호기심이 없다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접하는 현실은 변화하지 못하고 미래는 수동적으로 답습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고령화 사회이므로 40-50대 이후 새로운 직업, 경험, 삶에 대한 대비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부전공을 정하듯이 관심사나 취미에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송 출연과 만화 스토리 작가도 오랜 관심을 최근에 실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입학은 동시에 하지만 졸업 후 인생은 달라집니다. 각자의 선택지도 다양해지고 다른 생활을 이어갑니다. 돈 많이 버는 의사도 필요하지만, 다양하게 행복하게 사는 의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 응 수 (좋은 가정의학과 원장, 1996년 졸업)

## 제천지역 동창회장, 박용수 선생님을 만나다



### ■ 제천 지역 원주의과대학 동창회장을 역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주의과대학을 1990년도에 졸업한 뒤 춘천성심병원에서 인턴을 마치고 재활의학과 전공의로 일을 하였습니다. 1991년 재활의학과 2기로 들어가 재활의학과를 전공한 후 고향인 제천에 개원을 하여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 제천지역 동문회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부터 제가 제천지역 동문회장을 맡았습니다. 제천지역은 원주의과대학 동문회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제가 동문회장을 맡으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에 계곡으로 다 같이 야유회를 가거나 겨울에 스키장을 찾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의사라는 직종이 시간을 많이 쏟아부어야 하는 직종이고, 따라서 한 번에 긴 시간을 내기 어려워 어쩌다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 술만 마시고 헤어지는 모임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벗어나 추억거리를 더 만들기 위해 더 참여적인 모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다른 동창들이 뜨거운 호응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앞으로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동창들끼리 모여서 인간관계를 더 끈적끈적하게 하고, 소통이 잘 되는 걸 넘어 눈빛과 분위기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모임을 이끌어

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선후배간의 돈독한 우애가 없다면 이러한 만남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정신 차리기 힘들 정도로 빠듯하게 굴러가는 현대 사회에서 각자 의사로서 바쁜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단비와 같이 항상 흥미롭고 기다려지는 동문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 ■ 학창시절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제가 해부학 실습을 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신 해부학교실 강호석 교수님께서 주관하시는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박쥐와 인간의 뇌에 해부학적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논문준비를 위한 주제였는데, 저를 포함해서 4명 정도의 학생이 한 팀으로 참여했습니다. 논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천연동굴에 가서 직접 박쥐를 채집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함께 박쥐를 채집하러 갔는데, 박쥐가 동굴 벽 쪽에 붙어 있어서, 로프를 잡고 있는 상태로 채집하기에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교수님과 동료들도 이 상태로 박쥐를 채집하기에는 위험하다며 모두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박쥐를 잡았던 일이 기억에 많이 납니다. 그 당시 친구들은 저의 첫인상을 보고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 일 이후로 교수님과 다른 친구들이 저를 열정적이고,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가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 ■ 유년시절 선생님은 어떤 모습이셨나요?

남동현 후배의 눈에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인상을 보고 제가 조용한 성격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도 모범생처럼 조용하게 자기일에 충실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보다 열정적이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만 옛날로 이야기를 돌리자면, 저는 서울 이태원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당시 이태원은 매우 혼잡하고 언제나 차분하지 못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부에 집중하기 쉽지 않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제 동창 중에 대학교에 진학한 사람이 저랑 행정고시 합격한 친구, 두 명 뿐이었으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이태원 사람들은 선후배관계가 끈끈하기로 유명하였습니다. 어릴 적에 체득한 끈끈한 인간관계와 내재되었던 열정을 바탕으로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과 사람간의 만남을 중시하는 성격은 현재 개원의사로 살아가는 일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도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니까요.

### ■ 재활의학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당시 저의 담임반 교수님께서 재활의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의학과 선배님들을 보다 가까이서 만날 수 있었고, 재활의학과에 대한 친근함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취미로 마라톤을 하고 있을 만큼 스포츠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박쥐 채집에 대한 에피소드에서도 살짝 유추할 수 있듯이 제가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고, 좋아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주어서 재활의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 마지막으로 동문 후배에게 남기고 싶으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저같은 경우는 전공의 때부터 개원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전공의 마치고 공중보건의로 일하면서도 빠른 시일에 개원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비를 했습니다. 7년이라는 기간 동안 개원을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회도 많이 따라다녔지만, 제가 중점을 두고 준비한 것은 단 하나, 의사와 환자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의미하며 의사로서 환자분들에게 진심을 가지고 다가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진심으로 환자를 도와주는 것"이 현재 재학중인 후배들이 의사가 되어서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할 과제이며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인터뷰: 남동현 (의학과 3학년)

## 여러분들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소식지 COS의 문은 원주의과대학을 사랑하시는 분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보람과 추억이 가득한 과거,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현재, 꿈이 이루어지고 희망이 실현되는 미래, 어느 시기의 이야기든 소중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COS에 투고를 해 주시거나 COS를 더 사랑받는 소식지로 만들기 위한 제안을 해 주실 분들은 언제든지 COS 편집실(033-741-0245/ jh1225@yonsei.ac.kr) 또는 동창회(033-741-0240/ ywal@yonsei.ac.kr)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학장에서 사장으로 변신하다



윤대성 (대화기기 대표이사, 1988년 졸업)



### ▲ 학장을 하시면서 특별히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였던 일이 있었나요?

건양대학교는 95년도에 개교가 된 학교입니다. 세브란스의 120년 역사하고 건양대학교의 20년 역사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륜이 짧은 신생대학이고, 지방대학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의과대학 인증 제도가 도입되는 초창기에 건양대학교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다른 일도 많이 진행했지만, 특히 건양대학교 의과대학이 5년 인증을 받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고, 저의 임기 3년차 때 5년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학장을 하면서 의과대학 인증제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신생지방대학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인증을 잘 받지 못하면 학교의 명성에 금이 가게 되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 ▲ 선생님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주의과대학 졸업 이후, 외과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한림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있다가, 2001년도부터 건양대학교로 자리를 옮겨서 일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도 역임했으며, 2013년에는 대학교수직을 사퇴하고 현재는 의료기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 비교적 젊은 나이에 학장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중책을 맡게 되셨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48세에 학장을 하게 되었는데, 크게 젊은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건양대로 간 것이 2001년이었으니 41세쯤이었는데, 한참 활발하게 일할 때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참으로 정신없이 일에 파묻혀 산 듯합니다. 환자를 많이 보니 수술도 많았고, 학회활동도 열심히 하고, 논문도 많이 썼고, 병원 보직도 맡는 등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인정을 받아 학장이 된 듯합니다. 어떤 계기로 하게 되었다기보다는 주위의 인정을 받다 보니 학장을 시켜 줘서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 외과는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습니까?

가족 중에 외과의사들이 많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은연중에 외과의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과대학에 진학해서도 외과 실습이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과 4학년에서 선택실습을 할 때도 외과를 지망하여 4주동안 1년차 레지던트 선생님을 따라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이 때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수술에 참여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수술을 경험한 듯합니다. 그 때는 학생신분이었지만 응급실에서 각종 시술도 해 볼 기회가 있었고, 이러한 경험이 외과를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 의료기기 사업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게 되신 계기를 소개해 주십시오.

외과의사로 살면서 수술방에 들어오는 의료기기들이 대부분 수입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술방에 국산 의료기기가 거의 없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던 차에 값싼 국산 의료기기를 제조하면, 의료수가도 개선되고, 내수경제가 좋아지고, 환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료기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해 보니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 ▲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3차산업이 더 발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분야는 3차산업에 속하니 시류에 편승하여 발전을 하겠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기초과학 분야의 뒷받침이 많이 부족합니다. 바로 옆 나라인 일본만 하더라도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한 명도 없으니 이러한 기초과학에서의 부족함이 앞으로 의료산업이나 다른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이 오래 안정되게 유지되려면 원천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거의 없는 게 문제이고, 사회분위기가 기초와 기반을 무시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 ▲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첫째로는 학생들이 지나치게 경제논리에 매달려서 소위 말하는 돈 되는 과만을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존감을 확고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수로 있을 때 학생들 수업에 들어가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힘들고 괴롭다고 기피과들을 자꾸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너의 자식들이나 부모님은 제3세계에서 수입한 의사에게 치료를 맡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을 자꾸 피하면, 이는 결국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사는 어떤 과를 선택하건 경영자로서의 소양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나 조무사, 동료의사들, 방사선사 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인성과 인품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선배의사들의 잘못이기도 한데 현재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의사들이 너무 병원에서 일하는 임상 의사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후배들은 병원은 물론 시야를 넓혀서 기초과학자와 기초의학자, 연구에 능력을 발휘하는 임상 의사, 의료기기산업 종사자, 보건 의료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로 뻗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패기 넘치게 도전하는 후배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인터뷰: 남동현 (의학과 3학년)



SNS 밴드에 연세원주의대 동창들을 초대합니다!



길승배  
(강릉동인병원 신경외과, 1989년 졸업)

원주의과대학 소식지 COS에 게재할 원고청탁을 받고 지난 세월을 되돌아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의 위치에 올 때까지 26년이란 세월이 한 순간처럼 지나가 버렸다는 사실이 꿈같이 느껴집니다.

매일 아침, 등교시간마다 오르던 학교 언덕, "눈감아, 등페!"로 시작되던 선배님들의 오리엔테이션, 어떤 장소에 가더라도 선후배를 만날 수 있고 눈빛으로 인사를 나누던 시절, 학교에 기숙사를 지어달라고 함께 모였던(다른 말로 시위를 했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31년이 지나는 동안 3천 명이 넘는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전국 어디에서나 우리 동창들의 역할이 사회 각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역사와 전통을 갖춘 명문 의과대학으로 발전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를 우리의 모교에서 우리를 훌륭히 교육해 준 성과라 평가합니다.

졸업생들 중에는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 동창도 있을 것이고, 의사로서 자리매김을 잘 하기 위해 열심히 환자를 진료하고, 새로운 학문을 습득하고 계신 동창도 있을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돌보아야 하듯이 졸업생들은 모교를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졸업생 각자가 사회에서 명성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가 발전하고 병원이 발전해야 그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명성을 얻는 일이 용이해지고, 동시에 명품학교와 명품의사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주의과대학 졸업생 전체를 대상으로 동창회 또는 동기회에서 정기, 비정기적으로 만남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동창의 소통을 위해 동창회 회장님 이하 지도부 동문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SNS 밴드를 만들어 동창을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연세원주의대 동창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으나 동창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 아니므로 "연세원주의대 졸업생"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이 순간 "연세원주의대 졸업생" 밴드에는 370여명의 동창들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370여명의 동창들이 한데 모이는 일은 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고, 가입하신 동창들의 초대 이어가기를 통해서 이루어 질수 있었습니다. 향후 적당한 시기가 되면 이 밴드를 연세원주의대 동창회에 넘기려 합니다. 동창회 사무실에서 전체 문자로 전체 동창에게 전달하는 것은 전달 기능이 가능할 뿐 소통이 없는, 일방적이라는 단점이 있으므로 SNS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동창을 모으려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초대 이어가기가 계속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SNS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교에 대한 좋은 추억, 고마움, 후배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선배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누구나 초대에 쉽게 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배라고 가벼이 여기지 않고 선배라고 낮가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밴드 가입 동창들의 프로필을 보면서 우리 동창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주어진 임무를 완성하여 의사가 인정하는 의사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밴드를 통해 각자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알리기도 하고 지역 동창회의 모임, 경조사도 공유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총 동창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모교에서 진행되는 새창조사업, 후배를 위한 장학 사업, 각 교실의 연구와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전기금 모금 등에 모든 동창이 참여하여 우리가 우리의 터전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동기들의 만남과 소통이 활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졸업 25주년 행사를 함으로써 동기들의 모임과 소통이 활발해지는 듯한데 현재보다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학교와 병원에서 교육을 받은 의사라면 무조건 믿고 환자를 부탁드립니다. 원주의대가 명품대학이 되어 주변으로부터 독립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 졸업 25주년 재상봉 행사를 마치고 7회 졸업생 대표 홍종찬



5월 9일, 드디어 그 날이 왔다. 설레이면서도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오랜 시간 준비한 오늘의 재상봉 행사를 무사히 마치기를 기원하며 신촌으로 향했다. 오전 10시, 25주년 재상봉 행사에 참여하는 동기들과 중앙도서관에서 앞에서 만났고, 원주에서 윤여승 의료원장님과 홍인수 학장님, 공인덕 교무부학장님을 모시고 온 리원연 동기(모교 호호기내과)도 제시간에 도착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백주년 기념관으로 향했다. 제중원 13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총장공관에서 식사와 담소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오후 1시 30분, 지금 출발해도, 원주까지 4시 30분에 도착하기 힘들다는 버스기사님의 압력으로 아쉽게도 단체사진 한 장만 찍고 바로 출발!!

역시 고속도로는 막혔고 마음은 초조해졌다. 믿는 건 오직 함께 계신 의료원장님과 학장님, 우리가 도착해야만 행사가 시작될 수 있다. 간신히 4시 20분에 모교에 도착하니 루가홀 앞에는 이미 많은 동기들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초청 은사님들도 이미 여러분 와 계셨다. 얼굴 본지 10년도 넘는 동기도 있었고, 졸업 후 처음 만난 동기들도 있었다. 많이 변한 모습과 또 변하지 않은 옛날 그대로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났다 지나가곤 했다. 동기들과 얘기를 나눌 틈도 없이 재상봉 행사가 시작되었다. 의료원장님, 학장님의 환영사에 이어 홍영재 연세의대 총동창회장님과 전철환 원주의대 동창회장님의 축사가 있었다. 내 순서도 아닌데 단상에 나가고, 동기들 소개순서에서 참석한 동기 몇 명을 빠뜨리고 호명하는, 실수투성이의 동기회장 담사가 있었으나 모두들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다. 모교 및 동창회에서 주는 기념품 증정에 이어, 우리 7회 졸업동기생들의 학교발전기금, 광혜장학금, 원주의대동창회 발전기금 전달식이 있었다. 모교행사를 마친 후에는 캠퍼스투어 시간을 가졌는데, 모교도 병원도 많이 바뀌었고, 병원은 외래센터 공사가 한창이었다. 앞으로 계속 변화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동창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은회 및 재상봉 2부 행사를 위해 인터불고 호텔로 이동중, 아뵘싸! 김종수 전 원주부총장님께서 발목을 삐끗하셔서 응급진료를 받고 귀가하시는 상황이 벌어졌다. 송구스런 마음으로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호텔로 향했다. 2부 행사는 문화를 선물하자는 김태진 동기회 총무의 제안에 따라 모든 동기생들이 동기회에서 준비한 나비넥타이와(남자) 스카프(여자)를 멋지게 매고 파티 분위기로 시작하였다

오프닝 세레머니로 김혜영 동기가 드뷔쉬의 <아라베스크 1번> 피아노곡을 연주했다. 개회사, 기도, 감사 인사에 이어서, 가장 원로이신 김주덕 전 학장님 말씀을 시작으로 참석하신 모든 은사님들께서 모두 한 말씀씩 해주시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막내 은사님이신 남궁미경 교수님께서도 수하여행을 같이 간 첫 번째 제자들의 25주년 재상봉 행사에 초청받으신 것이 감격스러우시라며 목이 메이셨고, 우리는 큰 박수로 화답했다. 이어서 은사님들께 여러 동기들이 합동으로 감사의 인사와 함께 선물과 꽃을 합동으로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전례가 없었지만, 동기들의 정성이 있어 가질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후 동영상으로 만든 학창시절의 사진을 보고 추억에 잠기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다.

만찬후 축하공연시간에는 최해천 동기형의 기타연주가 있었다. 30년만에 다시 들어보는 <로망스>와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은 손톱이 부러지면서도 연습한 만큼의 감동이 있었으며, 이어지는 김혜영 동기의 리스트작 <사랑의 꿈> 피아노 연주도 코피 흘리면서 연습한 만큼의 우아함이 있었다. 박상훈 동기형의 인덕(?)으로 초청한 가수 이상우씨는 노래는 물론 말씀씨도 훌륭했고, 행사에 가수가 오면 분위기가 확실히 산다는 걸 여실히 증명해 주었다. 의대 동기모임에 가수를 초청한건 우리가 처음 아닐까? 축하 공연후 여흥시간에는 은사님과 동기들의 노래자랑이 이어졌다. 박성준 동기의 능숙능란한 사회 솜씨로 분위기는 고조됐고 여자 동기들로 구성된 그룹 "교태스"의 노래와 춤을 비롯해 가곡, 대중가요, 동요등 장르를 망라한 노래가 불려졌다.

어느덧, 호텔 행사를 끝낼 시간, 은사님들을 배웅하고 나머지 동기들은 각각 그룹별로 술에 대한 연구모임(?)을 가졌다. 감사하게도 해천이형이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기들을 말로만 듣던 대지 천 평의 대저택에 초청해주셔서 늦도록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 골프팀은 골프장으로, 아침에 일찍 귀가한 동기들을 제외한 나머지 동기들은 매지리 캠퍼스 투어후 별미 막국수를 먹고 상경하는 것으로 행사를 끝냈다.

개인적으로는 행사 진행하느라 많은 동기들과, 얘기는커녕 안부도 제대로 물어보지 못할 만큼 시간이 없었다는 점이 너무 아쉽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은사님들과 홍영재 총동창회장님, 전철환 원주의대 동창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역대로 가장 많은 인원이 기부금 모금에 참여했고, 가장 많은 인원이 재상봉 행사에 참석했으며, 은사님들께 정성어린 선물을 드린 우리 7회 졸업 동기생들에게 가장 감사하며, 그런 우리들을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기초의학자의 삶, 자세히 들여다보기



남궁준 (카이스트 박사후 과정, 2006년 졸업)

남궁준 선생님은 2006년에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하신 선배님으로 모교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마친 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박사후 과정을 밟고 계신다. 최근에 <Nature Communications>에 논문을 발표하시면서 생물학연구정보센터의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한빛사)"에 등록되었다. 일반적으로 MD(Medical Doctor)라고 하면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 의사를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졸업 후 기초의학을 선택해서 인체의 신비를 연구하시는 의과학자 남궁준 선생님과 인터뷰는 2015년 8월 7일,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이루어졌다.

### ■ 왜 기초의학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고등학생 때에는 공대진학을 원했고, 공부를 할 때에도 수능에 맞추어진 공부보다는 하고 싶은 분야에 몰두하곤 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할 때 부모님의 권유로 의과대학에 입학했는데 대학생활이나 공부하는 과목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지만 생화학은 굉장히 재미있다고 느꼈습니다. 생화학을 공부한 후 본과 2~4학년 과정을 거치면서 흥미롭다고 느낀 과목도 있었지만, 생화학에서 다루는 여러 분자생물학적 메커니즘에 더 매료된 것이 기초의학자의 길을 선택한 계기입니다.

### ■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밟아 가는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요?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원에 입학하여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치면 남자들은 보통 군대에 가게 됩니다. 이 때

실험실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서 3년간 대체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군대를 마친 후에는 연구소에서 박사후 과정으로 연구를 계속할 수 있고, 제약회사에 입사하여 신약 개발 등의 연구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개인에 따라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는 어떻게 오셨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모교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마친 후 진로를 고민하다 박사후 과정에서 그동안 해 온 연구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새로운 분야를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지적 호기심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 나름대로의 연구도 하고, 대학원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 최근에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논문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대사성 질환에 관심이 많은데 대부분의 대사성 질환에서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비만입니다. 우리 몸은 소모되는 에너지보다 섭취하는 에너지가 많을 때 남은 에너지를 지방조직의 형태로 저장하는데, 이 저장조직이 증가된 상태가 바로 비만입니다. 흔히 중추신경계의 신경전달물질로 잘 알려져 있는 세로토닌은 중추신경계에서 식욕억제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추신경계 외에 장(창자), 이자, 지방과 같은 곳에서도 세로토닌이 합성되는데, 말초조직에서는 혈관수축 작용 등 일부 작용만이 밝혀져 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세로토닌이 합성되는 과정에서 반응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을 매개하는 트립토판 수산화효소(Tryptophan hydroxylase, TPH)를 억제하는 물질인 p-chlorophenylalanine(PCPA)를 사용하여 세로토닌 합성을 억제하면 지방합성이 억제되고 에너지 소모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는 지방세포 특이적으로 TPH를 knock-out시킨 생쥐실험에서 재현되었고, 이는 지방조직에서 세로토닌 합성의 억제로 인한 항비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대사질환의 기저에 있는 비만 조절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 ■ 기초의학 전공자들에게 KAIST 의과학대학원이 매력적인 곳인지 궁금합니다.

네, 매력적인 곳입니다. 시설이 좋아서 연구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다양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서로의 분야에 대해 이야기 하고 교류할 수 있고,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실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의논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 인연을 맺고 후에 각자의 길을 가더라도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 ■ 의사들이 KAIST 의과학 대학원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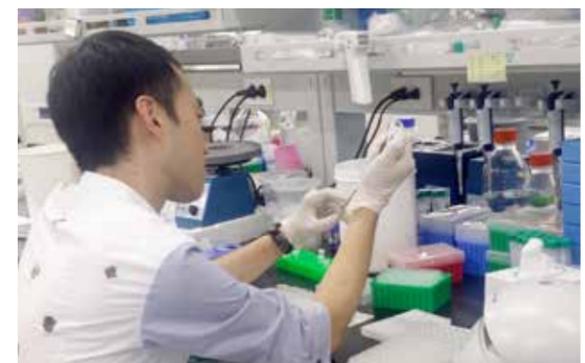
KAIST 의과학 대학원은 면허를 소유한 의사와 치과의사만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의과학을 전공한 학생들도 일부 있으나 조금 다른 커리큘럼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수와 대학원생 각자가 관심을 가진 분야에 대한 공부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 자연과학 전공자들에 비해 의사로서 기초의학 연구에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의과대학에서 임상과목을 많이 공부하므로 진행중인 연구의 임상적 적용을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점, 임상적으로 유용하리라 생각되는 연구주제를 선정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연구를 함에 있어서는 개인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내가 기초의학을 전공하길 잘했다" 등의 뿌듯함을 느끼실 때는 언제입니까?

며칠 밤을 새워가며 힘들게 연구했던 시간이 한 편의 논문으로 나올 때가 참 좋았지요. 실험결과를 잘 얻은 날 혹은 결과는 부족하지만 스스로에 대해 기쁘고 만족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실험에 대해 고민이 있었는데 오랜 생각 끝에 해결하면 정말 기쁘고, 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도 즐거움을 많이 느껴요.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잘 이해해 주고 좋아할 때 기분이 좋습니다.



### ■ 기초의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한 후에 연구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적이 있으신지요? 힘들실 때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알려 주십시오.

실험이 잘 안 될 때 힘이 드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물리적으로 일이 잘 안 될 때, 이때는 이곳 카이스트에 실험 전문가들이 계셔서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험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내가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실험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혼자 생각해서 막힐 때면 교수님과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해결방법을 모색해나가지요. 스트레스를 받을만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는 저는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카이스트는 캠퍼스가 넓어서 산책으로 걸으면서 다른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 ■ 좋은 논문도 쓰시고 한빛사에 선정되는 기쁜 일들이 있으신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번 논문에 대한 후속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지방조직에서 세로토닌의 작용기전이 어떠한지, 또 어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차 좋은 곳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도 하고 싶고, 행복하게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인터뷰: 임성하 (의학과 2학년)



## 산부인과학교실

최성진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 1994년 졸업)



원주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의 역사는 1959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개원부터 시작됩니다. 1964년에는 산부인과 전공의 모집인가를 받으면서 의국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76년 제6대 과장으로 취임한 김대현 교수는 그 해에 laparoscopic tubal ligation을 강원도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1978년 일본 Hirosaki대학 산부인과에서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후 환자진료와 학문연구에 의욕적인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본원 산부인과의 오늘날의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틀을 이루셨습니다. 애석하게도 1993년, 병원장으로 재직중 과로로 유명을 달리하셨지만 김 교수님의 병원에 대한 애정과 헌신의 자취는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1986년 모자보건 종합센터를 본원에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고, 이로써 본원은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기도 일원에서 국민보건 및 의학교육 향상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모자보건 사업을 총괄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현재의 규모를 갖추게 되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1983년 전공의를 수료한 차동수 교수님께서 전임강사로 부임하셨습니다. 1988년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Gynecology Oncology Department에서 1년간 연수를 하시고 귀국하신 후 현재까지 부인종양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기시면서 많은 후학을 양성

해내셨습니다. 같은 해에 한혁동 교수님께서 전임강사로 부임하셨고, 1985년 미국 Boston 에 있는 Harvard Medical School, Brigham and Woman"s Hospital에서 Reproductive Endocrinology and Infertility 분야에 대한 연수를 하셨습니다. 1987년 귀국하신 후 본원에 불임클리닉을 개설하였고, 강원도 최초로 시험관아기 시술에 성공하시는 등 불임치료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현재 대한보조생식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등 학회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교수님들께서는 반평생을 수고하신 본원에서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셔서 후학들에게 아쉬움이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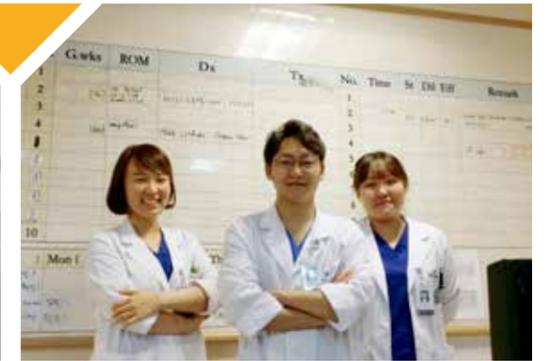
1984년에는 이영진 교수님께서 부임하셔서 현재까지 폐경 및 생식내분비 분야를 맡고 계십니다. 1992년에 전임강사로 부임하신 정인배 교수님께서 태아감시장치, 산과 초음파 등의 선진기법을 임상에 적용하였으며, 1995년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는 Wayne State University, Hutzel Hospital에서 Reproductive Genetics에 대한 연수를 하시고 1997년 귀국하셔서 현재까지 모체태아의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필자 최성진 교수는 2003년 부임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1년까지 Duke University에서 연수를 했고, 모체태아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4년 부임하신 한경희 교수님께서 부인종양 분야를, 2010년 부임하신 박은영 교수님께서는 일반 산부인과 진료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2013년에는 정다운 교수님께서 부임하셔서 부인종양 및 일반 산부인과 진료를 담당하고 계시고, 2015년 9월 1일에 임상조교수로 발령받은 정연수 교수님께서 불임, 생식내분비 및 일반산부인과 진료를 맡고 계십니다.

저희 교실의 강점이라면 전통적으로 전공의들의 수련과정에서 풍부한 임상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전공의를 수료하신 교실 동문들은 전문의 자격 취득과 동시에 자신있게 독립적으로 수술 및 진료를 시행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강점이며,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면서 "원주기독병원 산부인과 출신"이라는 믿음직한 브랜드를 형성해왔습니다. 실력뿐 아니라 환자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

음으로 진료에 임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환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며, COS 1, 2호에 소개된 권장연, 김명철 동문들처럼 학교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여 각종 장학금과 기부금을 통해 모교와 교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교실 동문들을 배출했다는 점이 교실로서는 큰 보람이고, 현재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들에게는 좋은 귀감이 되는 자산입니다.

전공의 숫자가 연차별로 6명씩 있던 시절도 있었지만, 출산율 감소 및 힘든 수련을 기피하는 풍조로 정원 및 지원자가 줄기 시작해서 한 때는 4개 연차 통틀어 전공의가 한 명도 없던 해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교수들이 당직을 서 가며 힘들게 지탱했지만 재작년부터 다시 지원자가 생겨나서 현재는 2년차 1명(강지은 선생), 1년차 2명(박지선, 이수신 선생)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는 힘들었던 악재를 기회로 삼아 의국의 역사를 새로 쓴다는 마음으로 전공의 지도를 하기 위해 의국 선배 대신에 교수들이 일대일로 전공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Textbook reading도 교수와 전공의가 독대하여 토론을 하며 진행하는 등 어느 때, 어느 수련기관에서보다 양질의 교육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하나 전통을 다시 쌓아나가다 보면, 이전의 좋은 전통을

있는 것과 함께 새로 더 좋은 전통을 만들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학생 교육에 있어서도 변하고 있는 교육 환경에 맞춰 OSCE, CPX 등 임상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임상 실습에서도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해 가는 중입니다. 연구 분야에서는 세포 배양 및 간단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자체 실험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초학 교실과 연계하여 산부인과 영역의 중개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불임 연구실을 통하여서도 많은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봉사 및 의료선교 분야에서도 정인배 교수님께서 KOICA 협력사업으로 네팔지역에서 단기전문가로 수차례 활동하셨고, 박은영 교수님께서도 병원에서 주최하는 의료선교에 빠짐없이 참석함과 함께 올해 8월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주최하는 인도 의료봉사에도 참여하시는 여러 교수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향후 2년에 걸쳐 세 분의 교수님이 정년을 맞게 됩니다. 여러 선배 교수님들과 동문 선배들이 쌓아온 전통위에 새로운 다짐으로 교실의 역사를 이어나가려 합니다. 새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저의 교실에 대해 동문들을 비롯한 많은 주위분들의 격려, 충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5회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동창골프대회



제5회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동창골프대회가 지난 6월 6일 경기도 여주소재 신라CC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동창들 간의 친목과 활발한 교류를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된 동창골프대회는 동창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성대히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메르스 사태라는 갑작스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윤여승 의원원장님과 홍인수 학장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석하신 많은 동창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또 후학양성에 큰 역할을 하시는 정형외과학교실 나중호 교수님, 예방의학교실 김춘배 교수님도 처음으로 참가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다.

이번 대회는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되어 개인 및 단체 대항 경기를 하고, 만찬과 시상식을 거행하였다. 새로 중책을 맡으신 전철환 신임 동창회장님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된 만찬에서 윤여승 의원원장님의 축사에 이어 홍인수 학장님께서 원주의과대학에 대한 지속적인 큰사랑과 관심을 요청하는 당부 말씀을 하셨다. 이어서 이강현 대외협력실장이 마지막 마무리를 앞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재창조사업에 대해 소개를 했다.

시상식에서는 동창들의 후원이 쏟아져 푸짐한 상품이 참석자들에게 전달되었다. 대회 최고의 성적은 남녀부에서 각각 76타를 친 김성주(87졸)동창과 86타를 친 권은용(97졸)동창이 기록했다. 작년에도 여자부 우승을 차지한 권은용 동창은 거의 프로에 가까운 실력을 보여주었다. 산페리오방식으로 환산한 결과 올해의 우승은 김태수(86졸)동창과 정태화(85졸)동창에게 돌아갔다. 남자부 준우승자는 이상겸(86졸), 3위는 김주홍(86졸) 동창이었다. 이번에 참석한 동창 중 유일한 부부동창이신 이준희(95졸), 박정심(94졸) 동창은 남자부 longest와 여자부 nearest로 환상의 호흡을 과시하여 많은 동창들로부터 부러움을 샀다. 이번에 처음 시행된 단체상은 1위 86졸업 동기, 2위 85졸업 동기, 3위 89졸업 동기들이 수상하였으며,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한 85졸업 동창들은 6명이 참석하여 동창회에 대한 여전한 사랑을 과시해 주셨다.

이번 대회에서는 또한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모금의 일환으로 사랑의 멀리건 티켓 판매를 실시했다. 많은 동창들께서 흔쾌히 티켓을 사주셔서 장학금 마련의 밑거름을 마련하였다. 또 조성민 동창께서 기증한 골프클럽을 경매에 부쳐 장학금 모금행사를 진행한 결과 김동환 동창께서 높은 액수로 낙찰을 받으셨다. 이러한 동창들의 사랑이 후배들에게 전해진다면 동창회는 더욱 돈독하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더 즐거운 다음 대회를 기약하며 이번 대회가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 밴드 동아리 "음사사" & 오케스트라 동아리 "UNISON"

박찬진(의학과 1학년) & 백지원(의학과 2학년)



#### 동아리 소개와 근황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줄인 음사사는 1994년에 창단된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의 밴드 동아리로 음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공연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정기 공연에서는 락 장르 위주로 공연을 하지만 아름드리 공연이나 겨울공연과 같은 비정기 공연에서는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음악으로 하나된 선후배 간의 돈독한 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Medical Symphony UNISON은 1986년 처음 동아리 등록을 한 이래로 올해 30년째를 맞이하는 원주의대 동아리이자 원주캠퍼스 유일의 관현악 동아리입니다. 동아리에 총 60명의 단원이 소속되어 있고, 열심히 활동하는 단원은 약 40명입니다. 오케스트라 동아리에 걸맞게 현 5부(제1, 2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와 목관악기, 금관악기를 담당하는 단원들이 골고루 분포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아리 활동

 음사사의 공연은 크게 정기와 비정기 공연으로 구분됩니다. 정기 공연에는 신입생 공연, 채플 공연, 아카라카를 포함한 축제 공연, 새터 공연, 겨울 공연 등이 있습니다. 신입생 공연은 여름방학 때 3주 정도 의학과와 의예과 1학년이 함께 합숙연습을 하며 준비하는 공연입니다. 신입생들의 첫 무대로 이 공연을 거쳐야만 음사사의 진정한 일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채플 공연은 의예과 2학년이 맡는 공연으로 기독교 음악 CCM 등과 밴드곡을 공연합니다. 새터 공연은 의학과 2학년이 신입생들에게 음사사를 홍보함과 동시에 다 같이 새터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공연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제 공연은 의예과 2학년이 담당하며, 원주 의과대학 축제의 분위기를 살림과 동시에 아카라카 바로 전에 분위기를 상승시켜 줍니다. 새터 공연과 축제 공연의 아카라카는 의학과 1학년이 매년 맡고 있으며, 아카라카 응원단과 함께 연습을 하고 합을 맞춰봅니다. 한 해를 마무리 하는 공연인 겨울 공연은 주로 흥익대 부근에서 진행되며 참여하는 사람과 장르, 곡의 선정이 모두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평소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곡 등을 자유롭게 연습하고 무대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름드리 공연, 버스킹 등의 다양한 비정기 공연이 있습니다.

### 기억에 남는 이야기

 음사사의 꽃인 신입생 공연을 위해 친구들과 한 달여간 합숙을 하고, 하면서 생전 처음 합주를 하고 무대에 올라 공연을 하는 짜릿함은 말로 할 수 없을 느낌이었습니다. 합숙 초기에 개인 연습을 하다 실력이 향상되어 처음 합주를 한 느낌도 생생합니다. 각각의 연주가 어우러져 곡이 완성될 때 합주의 매력을 알게 됩니다. 선배님들이 공연에 적극 참여하여 무대에 오르는 것은 합주의 매력 때문일 것입니다. 매지와 일산동을 매일 왕복하며 연습할 때는 시간과 금전면에서 여유가 없었지만 연습을 통해 작품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 즐거웠으므로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연습 과정에서 끈기와 인내를 배웠고, 합주를 통해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들로부터 공연 노하우와 연주기법을 배우면서, 동아리에 대한 끈끈한 유대감을 가지게 되었고, 동아리방에서 보낸 시간을 통해 회원으로서의 소속감, 유대감, 자부심을 얻게 된 것이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다른 동아리와 마찬가지로 MT와 같은 친목활동 이외에, 매년 2회의 연주회를 기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학기 초에 이루어지는 신입생 환영회에서는 귀에 익은, 어렵지 않은 곡들을 몇 개 묶어서 연주하고, 여름방학 또는 2학기 초의 정기연주회 때는 클래식 위주로 선곡을 하여 서곡, 모음곡(또는 협주곡), 교향곡 등을 연주합니다. 각 연주회를 준비하기 위해 방학동안 약 4주간의 합숙을 하게 되는데, 이 합숙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동아리원으로써 필요충분조건의 하나입니다.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합숙기간 중에 동아리원들이 서로 결속을 다지고 한 목표를 위해 달려가게 되므로 어찌 보면 유니슨 활동에서 방학중의 합숙에 거의 모든 비중이 걸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기중이라고 해서 동아리가 휴면 상태인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친목활동 이외에도 동아리 내부적으로 의예과생들이 준비하는 작은 연주회, 졸업생 환송회나 동아리 외부적으로 학위 수여식 공연, 채플 특송, 동문 행사 공연, 음악 봉사 등 크고 작은 공연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최근에는 대학생 오케스트라 연합(AOU)에도 가입하여 다른 대학 오케스트라와 교류 및 다양한 행사참여(ex. 서울시향과 함께하는 플래시몹), 클래식 공연 할인 혜택 등을 통해 단원들의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한 누구가 그렇겠지만, 제 앞가림 못하던 첫 시기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의예과 1학년 때 작은연주회라는 이름으로 예과생들이 연주회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악장이던 형이 "B rossette"라는 곡을 던져주시며 연주하라고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당시 첼로 레슨을 일곱번 정도 받았을 때인데 그야말로 겨우 도레미파에 대해 현이나 굽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곡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무지막지한 첼로 솔로가 나옵니다. 지금 들어도 무시무시할 정도인데 그래도 그 곡을 연주해 보겠다고 며칠 밤을 새며 연습해서 겨우 들어줄만한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정작 공연 때는 긴장을 해서 그랬는지 소위 말해서 말아먹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 때 이후로 "해서 안 될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마음으로 매 공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공연뿐 아니라 모든 게 그렇겠지만 시련이 실력을 늘려주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체험한 것이 기억에 납니다.

### OB분들과의 교류

 총회 때마다 음사사 지도교수님이시자 음사사의 OB이신 임정수 교수님이 참석해 주십니다. 역시 동아리 선배님이신 심홍진 교수님께서도 신입생 공연에 자주 참석해 주십니다. 1년에 한 번씩 홈커밍데이를 진행하는데 이 때 졸업하신 OB 선배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시므로 후배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집니다. 이 날은 평소 자주 뵙지 못하는 선배님들을 만나서 반가운 인사를 드리고 선배님들을 알아갈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은 만남의 시간을 통해 병원과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많은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자랑하고 싶은 동아리 이야기

 음사사는 자신의 음악에 대한 갈망을 마음껏 해소할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동아리방에는 전자 기타, 통기타, 베이스기타, 드럼, 키보드, 마이크, 앰프 등 공연에 필요한 모든 악기들이 보관되어 있으므로 음사사 지도교수님과 졸업하신 선배님들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악기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름드리 공연과 같은 비정기 공연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곡들을 마음껏 연주할 수 있으며 축제 때 버스킹(길거리 공연) 등을 통해 공연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선배님들로부터도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음사사의 자랑입니다. 통기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해 주시기도 하고, 고가의 스네어를 기부해 주신 OB 선배님도 계십니다. 경험을 쌓고 실력을 갖추신 선배님들께서 자주 동아리방에 오셔서 편하게 후배들을 가르쳐 주시는 좋은 문화가 있어서 끈끈한 유대와 친근함을 자랑하는 동아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과 관심 속에서 악기를 배울 수 있는 음사사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동아리라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큰 공연을 준비해야 하는 음악 분야(특히 클래식)는 동아리 운영비가 많이 들고 이것을 학생들이 추렴해서 감당하기에는 매우 벅잡니다. 따라서 선배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숙이 다가오면 지금까지 유니슨에 몸담으신 선배님들께 소식도 알려드리고 도움도 요청할 겸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맞는 선배님들께서는 공연에 직접 찾아오셔서 후배들과 함께 어울리시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에 몇몇 졸업생 분들께서 아직도 음악적인 열정이 살아계심을 느끼곤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졸업생과 재학생이 함께 공연할 기회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아리의 이름에 쓰인 Unison이라는 단어는 음악용어로는 모든 악기가 한 음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과대 내에서도 규모가 큰 동아리이고, 특히 오케스트라의 특성상 구성원 전체가 하나의 곡을 연주하는 가운데 화합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각을 하나로 조화시킬 리더가 필요하긴 하지만 단원들 개개인이 없다면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서로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서로 잘 맞춰주고 있으므로 동아리가 지금처럼 잘 유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큰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위기상황이 없을 수가 없고, 회장도 일개 학생일 뿐이므로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모든 갈등을 봉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통을 분담해주는 동기들, 선후배들이 있었기에 유니슨이 발전해 가면서 구성원들이 동아리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동아리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이유입니다.



참 좋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저는 2014년에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제 1대 의학과 학생회장이라는 귀 한 자리를 맡았습니다. 졸업생이 40번째 배출되는 원주의과대학에 지금 까지 학생회장이라는 자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건학과가 매지캠퍼스로 옮겨간 후 의학과만 있었지만 간호학과와 치위생학과의 새로 생기면서 기존의 의학과 학생들을 위한 "의과대학 학생회"는 간호학과와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모두 아우르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학과 학생만을 위한 단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4년에 원주의과대학 의학과 학생회가 발족을 하면서 초대 회장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의학과 학생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면서 저는 전국의 의과대학 및 의학 전문대학원의 학생대표들과 만나 다양한 이슈를 공유하고 각 학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원주의과대학이 참 좋은 학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의과대학에는 서로 모르는 학생일지라도 캠퍼스

내에서 서로 목례를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타 의과대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배가 후배에게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경직된 형태가 아니라 나이와 전공에 무관하게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대하는, 과학에 기초한 의료인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짧은 날, 6년 동안 원주의과대학에서 캠퍼스의 문화를 경험하며 갖추게 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은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를 위한 합리적인 협진과 토론을 하는 데에 씨앗이 될 것입니다.

2013년부터 원주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된 의학과 신입생들은 원주의과대학 캠퍼스 대신 10 km정도 떨어진 연세대학교 매지캠퍼스에서 1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의학을 배우는데 기반이 되는 기초 과학을 우수한 실습 환경에서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장님, 부학장, 의학교육과장님께서는 당시 회장이던 저를 포함한 다른 학생들과의 토론과 설문조사를 통해 새로운 캠퍼스 생활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셨습니다. 1년 뒤에는 매지캠퍼스 생활을 처음 경험했던 13학년 학생들에게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보안을 위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40번째 졸업생을 배출하는 역사를 지닌 의과대학으로 원주와 신촌에서 선배님이자 스승으로 후배 학생들을 위해 애 쓰시는 교수님들께서 많다는 것이 정말 큰 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후배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는 원주의과대학은 지금도 학생들이 살고 있는 기숙사와 교육 시설을 수시로 보완해 가고 있으며, 계속 개선되고 있는 중입니다. 원주의과대학 부속병원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재건축 공사를 통해 의료 서비스 낙후지인 강원도의 대표병원에서 그 이상으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좋은 원주의과대학이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겠다는 행복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학을 업으로 삼고 사회에 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성장한 원주의과대학이 무궁한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도 의학과 학생회장 정 태 종

Akron 대학에서 교환 학생을 경험하다

김률화 (의예과 2학년)



2014년 5월, 의예과 1학년에 재학중이며 한국 토박이로 살아온 나는 거의 반년 동안 다른 대륙에서 살다 오게 하는 계기가 되는 강의를 듣게 되었다. <전인활동> 수업시간에 초청된, 원주의과대학에서 두 번째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최두용 선배(현재 의학과 2학년)의 발표였다(첫 번째는 현재 의학과 3학년인 조혜민 선배다). 그 발표 덕분에 나는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교환학생으로 미국 생활을 하게 되었다.

내가 간 곳은 오하이오 주의 Akron이라는 인구 20만의 중소도시였고, 머물며 수학한 곳은 University of Akron이라는 공립대학교로 주에서 네 번째로 큰 대학교였다. 1월에 개강할 무렵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은 "과연 내가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강의들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였다. 미국 드라마를 보는 것이 원래 취미이긴 했지만,

수능 영어 말고는 딱히 영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교수님들의 발음은 알아듣기 쉽고 분명해서 큰 어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친구들과의 일상 대화에서 처음에 곤란함을 겪었다. 감정에 따라 말을 빨리하고 여러 속어들을 섞어 사용하다 보니 종종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말해달라고 해야 했다. 하지만 기죽지 않고 열심히 친구들을 사귀고, 최대한 내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온종일 영어만 썼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영어가 편해져 있었다.

수업은 총 7과목을 들었는데,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 따라가기 쉬우면서 한국에서는 접해보지 못한 강의들을 위주로 듣게 되었다. <Anatomy & Physiology I>에서는 초반에 여러 기본 의학용어와 한국의 고등학교 수준의 생물을, 후반에는 머리, 팔, 다리, 가슴의 뼈에 대해 다

루었다. 그 외에 <Death and Dying>, <Jazz Dance>, <영어 작문>, <심리학> 등 굉장히 재미있고 다양한 수업 들을 들을 수 있었다. 여러 수업을 들으면서 한국 수업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를 느낀 것은 절대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었다.

내가 선택한 과목이 모두 절대 평가였고, 내가 참여하지 않은 다른 수업에서도 절대평가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또한 University of Akron의 경우 모든 과목의 수업계획서가 굉장히 꼼꼼하고 구체적이었다. 한 과목의 수업계획서(왼쪽 사진)가 기본적으로 4~5페이지는 되었고, 그 계획서에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충실했다. 각 과목의 시험 기간에는 과목별 Study Guideline이라는 것이 항상 제공되어,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고 어떤 질문에 대답할 줄 알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으며 실제 시험도 그것에 충실했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배신감 없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교환학생을 준비하면서 본 교환학생들의 경험이나 보고서에 하나같이 "미국 수업은 덜 권위적이며 자유롭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실제 경험해 보니 정말로 그 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업은 7개 과목 모두 20명 미만의 소규모였고, 그러다 보니 수업 시간 내내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다. 토론 수업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학생들은 수업 주제와 조금이라도 관련 있다 싶으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자신의 아르바이트 이야기, 남자친구 이야기, 자기 집 개 이야기 등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끼어들었다. 처음엔 그저 당황스러웠지만, 적응한 후에는 비록 수업의 진행을 방해하는 단점도 있지만 이런 문화가 하급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가능하게 하여 쌍방향으로 좋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하게 되었다.

학교 시설은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웠고, 특히 도서관과 체육 시설인 Rec center를 소개하고 싶다. 학교의 중심 도서관인 Bierce library(왼쪽 사진)의 경우 우리나라의 열람실과 같은 곳은 없었지만 4~5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왼쪽 아래 사진)이 아주 많이 배치되어 있어 함께 또는 혼자 앉아 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공부하기 좋았다. 테이블이 산발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깔끔한 인상은 적으나 덜 답답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또한 학생이 원한다면 1:1로 수학, 과학, 글쓰기 과목들 위주로(수요가 많은 과목이라면 다른 일반 과목들 역시) 일주일에 2시간 한도까지 원하는 시간대에 tutoring을 받을 수 있는 tutoring center가 있었다. 나 역시 영어 작문 실력을 많이 늘리고 싶어, 거의 매주 신청하여 글쓰기 tutoring을 받을 수 있었는데, 문법과 표현 교정, 그리고 글쓰기 자신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체육 시설인 Rec center(아래 사진 2개)은 University of Akron의 자랑거리로, 굉장한 규모와 시설을 자랑했다. 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 시간대별로 있는 group activity들을 즐길 수 있었는데, 명상, 요가, 줌바 댄스, 에어로빅 등 그 종류도 다양했다. 또한 누구나 무료로 수영을 즐길 수도, 암벽등반을 즐길 수도, 각종 헬스 시설들을 즐길 수도 있었다. 새벽 6시에 Rec center를 종종 방문하여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20~30명은 넘을 정도로 애용되는 장소였다.



교환학생 신분이라 우리학교의 등록금만 내면 되었지만, University of Akron 대학의 등록금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비싸서 그런지(직전 학기의 경우 1082만원 상당) 다양한 종류와 규모의 행사가 매주, 거의 매일 열리고 있었다. 싱어송 라이터들, 아카펠라 그룹들, 코미디언들을 초청해서 쇼를 개최하거나 리더십 강연, 커리어 강연 등도 있고, laser tag 이벤트, 발렌타인데이 선물 상자 만들기, Ballroom dance 행사, 파충류 전시 행사, 풍선 동물 만들기 1일 강좌, 음악회, 연극, movie night 등 별의별 행사가 다 있었다. 그래서 과제를 마치고 시간이 남더라도 심심할 겨를이 없었다.

영어 실력 외에, 내가 미국에서 한 학기간 생활하며 얻은 것들을 꼭 이야기하고 싶다. 첫째는 외국진출을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 점이다. 그 전까지 외국 생활을 해 본 적이 없고, 영어에도 그다지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영어가 늘고, 현지 생활방식과 현지인들에게 융화되다 보니 자신감이 생겼다. 예전엔 그냥 막연한 두려움, 정보력 부족으로 "외국에 나가면 고생뿐인 걸"하고 생각을 담아버렸는데, 이젠 아니다. 꼭 외국에 나가겠다는 말은 아니지만 기회가 온다면 잡을 수 있는 열린 마음과 평생에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난 느낌이다.

둘째는 미국 문화의 좋은 부분이다. 교과서적인 말이지만 정말 절절하게 느낀 것이 한국에만 있었더라면 결코 느끼지 못했을 다른 사고방식들을 접할 수 있었다. "좀 더 자유롭고, 덜 권위적이며, 좀 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들"이 사소한 것에서 항상 느껴졌다. 항상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가 있는 것, 어딜 가나 장애인이나 반려동물 소유자를 배려한 시설이나 표지판이 있는 것, 사람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친근하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길에서, 식당에서 말을 걸어오는 것, 젊은 사람들이 전형적인 공부 외의 다른 길들도 훨씬 많이,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등이 인상적이었다. 물론 미국의 치를 떨 정도로 안 좋은 점들도 많았지만 이런 내용은 좋은 점이라 여겨졌고, 부러웠다. 외국 생활의 가장 장점은, 언어 외에, 외국 문화의 좋은 점을 맘껏 느끼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옮겨 심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이러저러하게 당연시 여기고, 생각하고, 행동했을 것들을, 지금은 어느새 "흠... 이렇게 말고 다르게 할래. 나부터 바뀌면 돼"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좋은 친구들(아래 사진 3개)을 만난 것이다. 헤어질 걸 알면서도 결국 알게 되고, 친해지고, 헤어질 때 어른이 된 후 드물게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미국인들도 정이 깊고 인연은 참 신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많은 후배들이 나처럼 교환학생 기회를 알게 되고, 충분한 고민을 한 후 가기로 결정했다면 각자 자신만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 후, 생활하면서 종종 그 우선순위를 다시 돌아보며 소신 있게 지내다 오기를, 소중한 것들을 얻어오기를 기원한다.



## MSC 농구부, 3년 연속 우승을 이룬다!

이종화 (의학과 4학년)



저는 현재 원주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중인 이종화이며, 동아리 Medical Sports Club, 줄여서 MSC의 전 회장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저희 동아리는 한림대, 아주대, 인하대, 강원대 등 10개의 의과대학들이 참가하는 경기-강원-충청 농구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이라는 쉽게 달성하지 못할 일을 해냈습니다. 이는 12번 개최된 이 대회의 최초 기록이기도 합니다. 첫 우승을 할 때까지만 해도 생각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지만, 농구부원 전원이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뜻을 한데 모아 노력한 덕분에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를 돌이켜 보면 거의 기적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팀은 처음부터 농구를 그리 잘하는 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 의예과 1학년이었던 저는 아침에 어떻게든 잠에서 깨 보려고 침대 위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전날 진행된 고된 합숙의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아침 6시반

부터 다시 아침 운동이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훈련 스케줄은 보통 하루 9시간이 족히 될 정도로 빡빡하게 2주일을 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학년 때만큼 그렇게 힘들고 고된 운동을 해본 기억이 없을 만큼 모두가 열심히 했습니다 (합숙 기간 동안 거의 모든 선수들이 한 번 이상 훈련 중 구토 증세를 보였습니다.). 어설피고, 체력 없고, 조직력도 부족했지만, 이번에는 꼭 우승을 할 거라는 마음가짐 하나로 푹푹 뭉쳐 같이 땀을 흘리던 일이 이제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첫 대회 장소는 논산이었습니다.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농구를 해 온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쉽게만 생각했던 다른 의과대학 팀들이 너무나도 조직적이고, 수준 높은 농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능력은 떨어지지만 팀원들과 협력해서 수비와 공격을 하는 품이 "아! 다른 팀들도 우리만큼 열심히 준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와 라이벌이었던 한



림대는 유독 팀 완성도가 높았는데, 우리 팀은 한림대에 가려서 언제나 4강, 준우승만 반복하는 "만년 우승후보" 팀이었습니다. 형들이 그 팀을 보고 이를 부득부득 가는 것을 보며, 한림대만큼은 절대로 지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한림대와는 4강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1학년이었던 저를 몰라서 열심히 막지 않는 동안 저는 크게 득점을 올려 전반에 13점차라는 리드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더 조직력이 좋은 한림대의 뒷심에 몰려 아쉽게 5점차로 지고 말았습니다. 4강에 머문 것이 저의 의과대학 첫 대회 성적이었습니다. 그렇게도 열심히 훈련을 했음에도 진 것이 너무 억울해서 본과 3학년 선배를 붙잡고 평평 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림대와의 악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해 우리는 결승까지 올라가 한림대에게 패배해 준우승을 했고, 그 다음해인 2012년도에도 한림대와 결승전에서 만나 또 준우승을 했습니다. 라이벌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의 전적이었습니다.

제가 회장이 된 의학과 2학년, 어떻게 하면 이길까라는 생각이 제 시간을 채웠습니다. 수업 중간 쉬는 시간에도, 밤에 잠을 자기 전에도, 시험공부를 하다가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연습하고, 후배들을 지도하고, 전술을 연구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떠올리며 다음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강조한 건 "우리는 한림대를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떠올리고 자기 세뇌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미 3년 동안 지면서 작아질 대로 작아진 우리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3번의 패배 후 우리는 운명의 장난처럼 결승전에서 또 한림대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한림대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한 번 겪은 트라우마를 극복한다는 것

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3쿼터까지 질질 끌려가며 상대 페이스에 말려 겨우 따라가는 경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기고 있으면 상대는 금방 뒤집어 버리는데, 이 2점차를 남는 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한 골 한 골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지만 4쿼터에 기적적으로 힘을 냈고, 역전에 성공하여 8점까지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종료 1초를 남기고 상대방이 쏜 3점슛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대회 참가 최초로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되었습니다.

경기 종료를 알리는 부저가 울리는 순간 주저앉았고, 4년간 함께 노력해 온 선배가 달려와 얼싸안은 일이 생각납니다. 모두가 기뻐 소리치던 그 순간, 너무 기분이 좋아서 처음으로 받은 우승 트로피와 깃발을 만지작만지작 거리며 달콤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동료들이 단순히 2주간의 합숙훈련이 힘들어서 보상을 받은 것만으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4년간 같이 땀을 흘리고, 승리를 위해 고민하고, 분하게 여긴 그 모든 시간들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오랜 기간 저를 괴롭혔던 "난 결국 패배자"라는 감정들이 모두 씻겨져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가장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했던 것"에서 "만년 우승후보" 라는 꼬리표를 떼는 글로 표현하기에는 어떻게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3년 연속 우승을 하는 동안 MSC는 실력에서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9개 팀들이 우리들을 보며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원주의과대학을 이길 수 있을까?"

MSC 농구부가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시기를 이끈 한 명으로써 졸업 전에 한림대를 이겼고, 3년 연속 우승을 했다는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후배들이 계속 발전하고 더욱 더 끈끈해지는 동아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MSC 파이팅~!



## 기초의학 블록수업을 경험하며



이가현  
(의학과 1학년)

저는 2013년에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의예과에 입학하여 현재 본과 1학년에 재학중인 이가현입니다. 저희 13학번은 조금 특별한 학번입니다. 일산동을 벗어나 매지캠퍼스에서 의예과 1학년을 보냈고, 의예과 2학년 2학기 때부터 본과 과목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선배들께서는 각 교실의 이름이 붙은 과목명에 따라 수업을 했으나 의예과 2학년 2학기에는 기초의학 각 과목의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세포대사와 조절>, <근골격계의 구조>, <세포 및 조직의 기능> 등 익숙지 않은 과목 이름으로 수업을 했고, 본과 1학년 1학기에는 3개의 기초의학 총론과목 외에 <기초소화기학>, <기초호흡기학>, <기초신장학>, <기초내분비학>, <기초소화기학>, <기초생식의학> 6개 과목에 걸쳐 블록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의학 과목을 블록수업 형태로 진행하며 배우고 느꼈던 점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는 것처럼 블록수업에도 장단점이 모두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블록수업에서는 친구 혹은 선배들에게서 "블록수업 해 보니까 어때?"라는 질문을 받을 때 무조건 "좋아!"라고 대답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기 중에도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의예과 2학년 2학기에는 시험과 수업이 연이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시험을 본 날에도 오후에 수업을 하고, 저녁에는 다른 과목 시험을 준비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기에는 해당 블록에 대해 시험을 치고 나면, 다른 블록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기가 진행되는 사이사이에 주어진 재충전의 기회는 학기말에도 지치지 않고, 변함없는 자세로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서는 과목 내에서 내용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때로는 중복되는 내용도 있어서 공부할 때 이해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블록은 일반적으로 해부학-조직학-생리학-병리학-약리학 순서로 진행되는데 각 과목 때 배운 내용들이 꼬리를 무는 형식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조직학에서 A라는 세포의 현미경적 특징과 간략한 기능을 배웠다면, 생리학에서 세포A의 생리학적 기전을 배웁니다. 그 후 병리학에서 세포A의 병적인 형태와 관련된 질병을 배우고, 약리학에서 그 기전에서 어떤 단계를 조절하여 약이 나왔는지를 배웁니다. 이러한 연계성으로 인해 각 과목이 기억 속에 파편처럼 따로 존재하지 않고 줄 하나에 구슬이 꿰어진 것처럼 여러 과목들이 함께 기억됩니다.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장점은 개인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생리학이나 생화학은 공부도 재미있고 성적도 꽤 잘 나오는 편이지만 해부학은 공부도 어렵게 느껴지고 그만큼 성적도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지난 학기는 각 과목이 따로 성적이 나와서 과목간 성적 편차가 있었던 것에 비해, 블록수업에서는 해부학에서 조금 낮게 받은 점수를 생리학이나 생화학 파트에서 극복할 수가 있어 비교적 고른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을 하기에 앞서 모든 과목 교수님들께서 회의를 함으로써 여러 교실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블록수업을 하기 전에는 각 교실 별로 수업 및 시험 일정을 세워 학생들에게 공지하였습니다. 그 후 총대가 모든 과목 스케줄을 종합하여 시험 및 수업을 이동시키거나 이동에 실패하면 학생들이 뻘뻘한 일정을 소화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학기는 블록수업 일정을 잡을 때 모든 교수님들께서 회의를 하시고 이미 각 교실의 상황이 반영된 일정이 학생들에게 공지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한결 수월한 스케줄로 학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블록수업 형식에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블록수업은 각 과목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개인이 복습을 늦게 하거나 하나의 핵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이어지는 수업에서도 계속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블록수업에서는 보통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성적이 결정되므로 시험을 망치면 반회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 부분은 하위권 학생들에게 특히 치명적입니다. 시험을 여러 차례 나누어서 보는 경우에는 가령 1차 시험 성적이 좋지 않을 때 남은 시험을 더 열심히 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데 블록수업에서는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셋째로 배운 내용을 상기시킬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교수님께서 저희 의대생들을 재미있게도 콩나물에 비유하셨습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가듯이 시험을 본 후 저희들은 배운 내용을 많이 잊어버리지만 어느새 콩나물이 길쭉하게 자라듯이 6년이 지나면 어엿한 의사가 되어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해당 내용을 거의 잊어버릴 때 즈음 다른 과목에서 같은 내용을 배우고, 또 잊어버릴 때가 되면 또 다른 과목에서 그 내용을 언급해 주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블록수업은 비슷한 내용의 수업을 한데 묶어 놓았으므로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다룰 수는 있어도 후에 그 부분을 상기시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외에도 각 블록 별로 출석이나 성적 평가 등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2주마다 학생들이 숙지하거나 적응하는데 혼란스럽다는 부분도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과 1학년 1학기에 기초의학 과목을 블록수업 형태로 진행한 것에 대해 느꼈던 점들을 써보았습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에 대해 좋다 혹은 나쁘다는 한 마디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형식이라도 개인마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아무리 좋은 형식이라도 단점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원주의과대학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여러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과정을 받을 수 있게 힘써 주신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 기초의학 블록수업 목록

- 기초순환기학
- 기초호흡기학
- 기초소화기학
- 기초신장학
- 기초내분비학
- 기초생식의학
- 기초신경과학
- 기초혈액종양학



주전공은 기타



최기홍 (의학과 4학년)

"20대, 대학생"이라는 말을 보면 흔하게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저는 제일 먼저 "낭만"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오래 전부터 음악은 저와 희로애락을 나누는 제 낭만이지만 기타를 시작한 것은 원주의과대학에 입학한 후부터입니다. 기타에 입문한 많은 사람들이 손 끝의 찌릿하고 따끔한 고통 때문에 금방 포기를 합니다. 그 순간만 지나면 기타를 치는 것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데도 말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기타를 치는 순간은 "명상"의 순간입니다.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기타에 중독된 채 의과대학 시절을 보낸 이유입니다.

학교 밴드 동아리인 "음사사"와 통기타 동호회인 "Finger Note"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공연 경험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음악인들과 선배님들을 알게 되었고, 공연에 대한 많은 생각과 열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행사 외에 "아름드리 공연"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원주에는 작은 공연장이 발달하지 않아서 공연 기회를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니 준비된 공연장이 아니라도 분위기만 살리면 공연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술집 "아름드리"의 마당에서 공



연을 준비했고, 이듬해엔 바비큐 파티를 겸한 "아름드리 파티"를 기획했습니다. 제 낭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람에서 시작했는데 많은 관객이 오시고, 즐겨주셔서 기쁘고 고맙습니다.

저와 친구들의 낭만행진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여름, 교내 축제의 흥을 돋우기 위해 동기 학우들과 짝 짝 버스킹 공연을 했고, 평창 더위사냥 축제에서 제 13년 지기 오랜친구와 또 버스킹 공연을 했습니다. 지금은 평창 메밀꽃 축제 공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증축을 기념하는 공연 오프닝을 준비 중이며, 그 이후에 마무리로 아름답리 파티를 또 기획중입니다.

학생의 본분은 학업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에 못지 않은 것이 낭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열정을 태울 수 있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도전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경험이 훗날에 제가 하는 일에 열정을 불사를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낭만을 즐기시다!



주전공은 사업



조재진 (의학과 4학년)

학생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게 특이한 일인가요? 제가 원주의대소식지 COS에 초대를 받은 것이 감사하기는 하지만 저는 특이한 학생이 아니라 하고싶은 일을 하는 학생일 뿐입니다.

대학 입학 직후부터 의사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대협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의료 현안들을 보고 접할 기회가 있었고 앞서 들은 얘기를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작금의 상황만 보더라도, 정부는 정작 필요한 "보건의료" 대신 보여주기 식의 "복지"에만 집중하며, 예산을 편중시키고 있습니다. 사회는 의사들의 노력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뿐 당연히 따라야할 보상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지며, 한정된 파이 안에서 해결하기를 강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파이를 확장함과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하려는 꿈을 키워 가고 있습니다.

2년 전 다양한 전공으로 구성된, 연고대 학생회장 출신의 친구들과 모여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서울시 청년 창업기업 5기에 선정되어 대학생 차원의 주체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한 활동 네트워크 서비스(Activity Network Service)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플랫폼 자체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영상으로 제작/확산함으로써, 누적 조회수 천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공감하며 시청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IT 분야에 관련된 경험과 지식과 인적 네트워크 기반을 얻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초부터 아래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닥터브릿지(drbridge.co.kr) : 병의원들의 사이트, 모바일 페이지, 앱 제작
- 의사만 사용할 수 있는 폐쇄형 SNS 개발 준비
- ㄹ사람 : 지인중 하고 싶은 일을 함께 할 사람을 실시간으로 모으는 지인기반 SNS, 정부지원금을 받아 9월 출시 예정
- MOITDO : 영상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한 영상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 갈 수 있도록 하는 영상 플랫폼

꿈은 크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항상 노력하고 고민하는 자세로 의사들, 나아가 의료계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저는 의료계에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청년 사업가입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재창조사업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소식



4월 1일 원주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설치



4월 15일 디스포트 무료시술



5월 4일 네팔 대지진 파견



5월 20일 닥터헬기 500회 출동



5월 1일 보건복지부 지정 강원금연지원센터 선정



8월 19일 무봉합 대동맥 인공판막 치환술 성공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당신의 사랑을 위하여

# Caritate tua

연세대학교 졸업인재상  
원주의과대학(의학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역량있고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의료인”

-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는 열린 의사
- 공동체와 소통하며 국민건강증진을 추구하는 의사
- 나눔과 섬김으로 소명을 다하는 어진 의사
- 주도적으로 자기계발을 하는 능력 있는 의사

## 여러분 모두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후원(약정)형태

기부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기부 : 희망하시는 후원(약정)금액을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현물기부 : 현물(현금 이외의 양도가능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기부시  
 대외협력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약정)방법

소정의 약정서 작성후 아래의 방법으로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 지정하신 계좌번호에서 약정하신 기부금이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무통장입금 : 기금별 계좌로 입금하신 후 대외협력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약정)문의 안내  
 (220-701)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 대외협력실  
 전화 : 033)741-0077 FAX : 033)741-0078  
 E-mail : fund@yonsei.ac.kr

## 여러분들의 관심과 고귀한 사랑!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 후원자 예우사항

구분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3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학교·병원 행사초청	-	●	●	●	●	●	●
감사패 수여	●	●	●	●	●	●	●
방이름 부여	-	-	-	-	●	-	-
건물이름부여	-	-	-	-	-	●	●
무료주차	제공 (방문시)	제공 (방문시)	VIP 무료주차권 제공 (교직원 포함)				
진료비감면	총진료비 (본인부담금)	10% (본인 5년)	20% (본인 5년)	20% (부부 평생)	50% (부부 평생)	100% (부부 평생)	100% (부부 평생)
	감면한도	-	-	연간 감액 5백만원 한도 (부부합산)	연간 감액 7백만원 한도 (부부합산)	연간 감액 1천만원 한도 (부부합산)	연간 감액 총기부액의 2% 한도 (부부합산)
진료편의	예약 및 진료 편의	제공	제공	제공	제공	제공	제공
	전담직원 동행 및 안내 서비스	처음 방문시 동행안내	제공	제공	제공	제공	제공
	외래/입원우선권	제공	제공	제공	제공	제공	제공
종합 검진권	기본검진 무료 (2인)	특화검진 무료 (2인)	기부 당해연도 PET/CT 종합검진 무료 2인 (부부 또는 직계)		기부 당해연도 VIP 정밀검진 (1박2일) 무료 2인 (부부 또는 직계)		
	기본검진 무료 (2인)	특화검진 무료 (2인)	이후 매2년 기본검진 무료(2인)×5회	이후 매2년 특화검진 무료(2인)×5회	이후 매2년 PET/CT 종합검진 무료 (2인)×5회	이후 매2년 PET/CT 종합검진 무료 (2인)×10회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 (부부)	-	-	30%		100%		

- ▶ 본 예우는 모든 후원자에게 적용됩니다.
- ▶ 후원자 예우는 후원금 완납일 누적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 동일인의 후원금은 후원항목, 후원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적용합니다.
- ▶ 종합검진은 연 1회 2인(2년간)에 한하여 적용하며 특화검진과 VIP정밀검진은 항목사항 중에서 선택합니다.

### 세금감면혜택

- ▶ 후원금액에 대하여 개인 및 기업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YONSEI,  
where we make *history*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220-701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medical.yonsei.ac.kr](http://medical.yonsei.ac.kr)